

연중 제21주간 금요일 · 마태오 25,1-13

깨어 있는 신앙, 나눌 수 없는 기름

열 처녀의 비유로 보는 오늘의 묵상

오늘의 복음 묵상 · 카드뉴스

STORY

슬기로운 다섯, 어리석은 다섯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밤중, 신랑이 옵니다. 준비된 다섯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INSIGHT 1



기름은 나눌 수 없습니다

기름은 남이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쌓아온 '믿음의 시간'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나의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입니다.

INSIGHT 2

측은지심을 이용하는 유혹

악의 유혹은 언제나 어두운 죄의 얼굴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하고 선해 보이는 '연민의 옷'을 입고 찾아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TAKEAWAY

공동체를 세우는 식별

"나의 열심"을 곧 "하느님의 뜻"과 동일시하는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사는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가로 분별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오 25,13